이자 낮추라는 정부, 공존의 정공법은 어디에?

김문호의 단상

은행 빚 갚느라 서민들은 등골이 휜다. 대출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5%(변동금리 기준)대로, 신용대출 금리도 연 6%에 근접했다. 서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대출자 중 8%(157만 명)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쓴 대출자도 275만 명(13.9%)이나 됐다.

고금리 부담에 짓눌린 서민들의 공분(公憤)에 금융당국이 다시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미친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맞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하다. 때론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계층 간 균형 등을 살펴 세밀하게 조정하는 관치나 정치도 요구된다. 하지만 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라 관치와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끌 것이다.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례는 많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그중 하나다. 결과는 고용 참사였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 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현 정부의 정책도 명확한 목표와 전략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2023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은행 독과점' 발언이 이어졌다. 그해 금융당국은 대출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과 손뼉을 마주했다.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이다. 긴 축기조였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지나지 않아 정책은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나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선보였다가 관련 대출이 늘자 갑자기 '가계부채의 주범'이라며 중단시켰다. 끝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다가 다시 대출을 조이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갈팡질팡이란 말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게다. 오락가락 정책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여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은행들을 두둔하고,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은행들은 오랫동안 관치금융을 비판해 왔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는 정부를 탓하며 관치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대신 은행들이 앉아서 국내 독과점 이익만 챙기는 체질도 그대로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도 고객 혜택에는 인색하다.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혁신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핏줄인 금융이 건강해야 전체 경제 생태계에도 활력이 돈다.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정치권과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국가 경제의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을 되살리는 정공법이 무엇인가를 늘 각성해야 한다. 은행들도 공존금융의 노력을 한층 가속함으로써 경제의 혈맥이 막힘없이 잘 돌도록 하는 심장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미키17'과 반도체 시장의 교차점

기자 수첩

구남영 〈산업부〉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을 최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과 엮어 분석하면 흥미롭다. '미키 17'은 과학기술의 오류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영화의 중심에는 '휴먼프린트'라는 기술을 통해 같은 인격체가 반복적으로 재탄생하는 미키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오류로 새로운 인격체인 미키 18이 탄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위기가 펼쳐진다. 이를 계기로 미키 17은 복제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결국 미키 17은 차세대 기술인 휴먼프린트를 파기하면서 복제 인간 시대의 끝을 맺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이 영화의 핵심은 '기술의 오류'와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상황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최근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박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각 기업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외 정치적 이슈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반도체 특별법까지 보류되면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외부 리스크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대만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반도체 관련 관세와 미국과 TSMC(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의 협력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키 17'에서 복제된 인간들이 겪는 갈등과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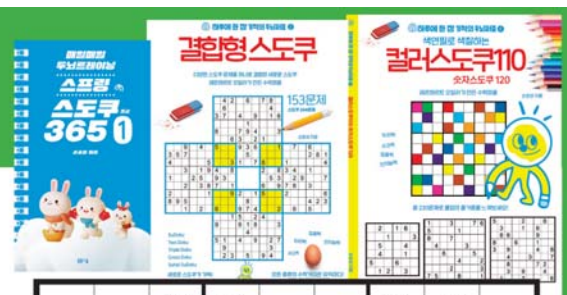
반도체 시장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기술의 발전이 정치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반도체 선두주자의 자리를 내주게 될까.

급변의 시대에는 한번의 선택이 전체 생태계를 좌우한다.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키 17과 미키 18의 협력처럼 국내 반도체들의 '팀 코리아'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koogija_tea@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9	8
	3				7			
				9				6
			2	6		4		
6		8				2		5
		4		5	9			
2				7				
			5				6	
8	4		1			3		

		3	9			2	7	
			3		6			
		7	1			9		
	3	1						2
2								9
9						7	8	
		9			7	4		
			8		3			
	6	4			2	3		

8	1	3	9	5	4	2	7	6
5	9	2	3	7	6	8	4	1
6	4	7	1	2	8	9	5	3
3	8	9	6	1	7	4	2	5
9	5	6	2	3	1	7	8	4
4	3	1	7	8	9	5	6	2
2	7	8	4	6	5	1	3	9
1	2	5	8	4	3	6	9	7
7	6	4	5	9	2	3	1	8

4	5	6	3	1	2	7	9	8
9	3	1	6	8	7	5	2	4
7	8	2	4	9	5	1	3	6
5	7	3	2	6	1	4	8	9
6	9	8	7	3	4	2	1	5
1	2	4	8	5	9	6	7	3
2	6	5	9	7	3	8	4	1
3	1	7	5	4	8	9	6	2
8	4	9	1	2	6	3	5	7

오늘의 운세

3월 7일 (음 2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기쁘다. **60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벼이 보지 마라. **72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는다. **84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37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퍽 난감하다.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73년생** 지갑이 두툼해지니 마음도 든든하다. **85년생** 뱀띠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38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 **50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62년생**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게. **74년생**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86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39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51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63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75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도록. **87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40년생 문서의 매매가 길하다. **52년생** 노란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준비. **64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6년생** 천하절색의 양귀비는 성형으로 되지 않음이다. **88년생** 이웃을 살펴주니 남들의 찬사도 받는다.

41년생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53년생** 분수에 맞게. **65년생** 흔한 성씨 이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77년생** 키우다가 버리면 유기견이 되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 이니 신중하게 키우도록. **89년생**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하루 간다.

42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54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66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78년생** 헤어져 돌아섰던 사람을 또다시 만난다. **90년생** 오후에 부모님께 경사 소식이 온다.

43년생 과민한 반응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55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67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자. **79년생** 무엇이던 받고 싶다면 먼저 줘라. **91년생** 사랑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44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라. **56년생** 오후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68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92년생**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한 말은 할 수 있으니.

4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 하자. **57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행운이 깃든다. **69년생** 종일 고생 끝에 낙이 있다. **81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기본일 듯. **93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졸인다.

46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58년생** 곁을 떠나는 사람은 잡지 마라. **70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82년생** 질투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동반된다. **94년생**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47년생 노모님 살아 실제 섬기기를 다하라는 말이 새삼스레. **59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1년생**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음을 추스르자. **83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95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蓋世)는 허세일 뿐.

김상회의 四季

한민족의 저력

세계 어디를 가나 글로벌 문화등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젊은 동력들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김치는 물론이요,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들이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경제적 위상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화 역량까지도 단연 상승한 것이다. 벌써 오십 년도 더 오래전에 탄허 스님이 예언하셨던 내용이 실현되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필자는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과 기질에 관해 그 원동력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를 기고한 적이 있다.

한국인들처럼 독특한 민족성과 기질은 결국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결론지어 본 것이다. 자연스럽게 풍수지리학도 연결 지어 보게 되었다. 백두대간의 기운은 척추 역할을 하면서 강이 흐르듯 산도 흐른다. 규장각에 소장된 '해동도리보(海東道里譜)'라는 '산경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천은 백두산에서 출발해 모든 산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경표'라는 말 자체가 산의 경락, 즉 '산의 흐름'을 뜻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에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한국인의 근면·성실이라는 전체적인 민족성도 형성되게 하였지만, 지방 따라 조금씩 지방색이 생기는 것은 지방마다 산천이 다르기 때문임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서 유달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풍수학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문창성이 뛰어난 봉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유려한 산천을 지닌 지역의 사람들은 말씨부터도 느리면서 급해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 한민족의 장점을 얘기하라면 '빨리빨리'로 급한 성질인데, 이로 인해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니 단점이자 장점으로 한민족의 저력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